

기업범위의 결정과 거래비용이론

—The Determination of the Boundaries of Firm and the Transaction Cost Theory—

전 인 수*

< 목 차 >	
I. 머리 말	1. 다 각 화
II. 거래비용이론의 내용	2. 수직적 통합
1. 발전과정	3. 해외직접 투자
2. 기본모형	IV. 거래비용이론의 비판
III. 거래비용이론의 적용	V. 맺 음 말

I. 머리 말

경영학의 연구대상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統合社會科學論의 대두와 함께 경영학계 일각에서 일고는 있지만 아직도 産業組織(industrial organization)인 企業(firm)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런대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경영학의 연구대상으로서 이러한 企業이란 18C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출현하게 되었기 때문에 先發産業國家들에서 그 典型을 볼 수 있고, 나아가 경영학이란 학문 자체도 企業 속에 體化되어 後發産業國家들에 파급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先發産業國家들과는 다른 歷史的인 經驗과 政治經濟的인 여건에서, 企業이 出現하여 成長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企業들은 組織構造, 所有構造, 事業의 範圍, 運營方式 등에서 先發産業國家에 있는 企業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로서 재벌로 지칭되는 기업집단(business group), 기업규모의 대형화, 집권적 의사결정방식,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가치창출 및 실현단계에 있어서의 높은 대외의존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特異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현단계 우리나라 資本主義를 무엇으로 규

* 홍익대학교 전임강사

† 學會原稿接受日 1月 7日

1) 한국사회구성체론은 국가와 독점자본이 결합된 國家獨占資本主義로 보는 시각과 帝國主義에 의한 周邊部의 前資本制의 生産樣式의 溫存·利用으로 보는 周邊部資本主義論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기 바람

1. 조희연의, 「현단계」, 제 1집, 한울, 1987.

2. 이진경,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 야탑, 1987.

정할 것인가 하는 社會構成體論的 시각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¹⁾ 하지만 그것이 갖는 階級矛盾이나 民族矛盾的 接近의 한계 때문에 産業社會에 있어 企業이 갖는 生命力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經營學的 視角에서 그러한 내용을 수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본다. 종래에 경영학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분야는 組織理論이다.²⁾ 이 組織理論에는 다양한 理論들이 포함되나 組織과 環境과의 관계를 보는 시각과 經營戰略과 組織構造와의 관계를 보는 시각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조직은 환경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결정한다는 資源依存模型(resource dependence model), 환경과의 관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범위를 결정한다는 效率性模型(efficiency model), 기업도 생태계의 유기체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환경에 適合化한다는 人口生態模型(population ecology model) 등이 있다.³⁾ 한편 후자의 예로는 통시적(중적) 분석으로는 찬들러(chandler)의 연구가⁴⁾, 동시적 횡적, 분석으로는 러멜트(Rumelt)의 연구가⁵⁾ 대표적인데 둘다 경영전략이 달라짐에 따라 조직구조도 바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組織理論에서는 企業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企業이 필요한 자원이나 소유한 자산을 시장기구(market mechanism)를 통해서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看過하고 있다. 즉 자원이나 자산의 소유주체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었지 이것이 교환된다는 사실과 이러한 교환이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한국기업이 갖는 特異性은 현단계 한국 자본주의하의 시장기구를 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한국기업이 갖는 특이성이란 결국 한국이라는 後發産業國家에서 기업이 출현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로 보고 이를 시장형성의 어려움이나 시장기구 운영의 잘못 즉, 市場失敗(market failure)적인 관점에서 접근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단계 한국 자본주의하의 시장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게 된다면 한국기업이 갖는 특이성을 어느 정도는 설명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産業社會의 특수성에 관계 없이 일반적인 市場失敗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것이 기업이 출현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해가는 과정과는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의 작업을 위해서 먼저 기업이 출현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을 “企業範圍(the boundary of firm)의 決定”이라는 말로 개념화한다. 이 경우 企業範圍를 무엇으로 보는가의 문제는 한마디로 답하기가 쉽지 않다. 연구자에 따라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關聯 및 非關聯多角化, 前後方으로 양분되는

2) 여기서 말하는 組織이란 주로 産業組織 즉, 企業을 지칭하기 때문에 組織理論을 企業理論이라고 쓰기도 한다.

3) David Ulrich and Jay B. Barney, "Perspectives in Organizations: Resource Dependence, Efficiency, and Popul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9, No. 3, 1984, pp.471~481.

4) Alfred D. Chandler, Jr., *Structure: Chapters in the History of the Industrial Enterprise*, Cambridge, M.I.T. Press, . . .

5) Richard P. Rumelt, *Strategy,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垂直的統合으로 정의된다.⁶⁾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시장과는 여러 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외국시장에의 진출인 海外直接投資까지를 포함시켜 논의하기로 한다. 이들 3가지 의사결정간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다. 먼저 수직적 통합의 경우는 기업의 가치창조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구매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企業의 出現과 관련성이 높고, 다각화란 기업이 축적한 자산을 이용내지 판매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事業領域의 擴大와 관련성이 높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란 앞의 양측면이 강조되지만 특히 事業領域의 地理的 擴大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假說的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노동이나 자본, 기타 자산의 소유주체들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인 시장기구를 통하거보다는 오히려 “보이는 손”(visible hand)인⁷⁾ 기업을 통해서 높은 이익을 실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企業範圍가 決定된다는 것이다.

이 假說的 關係는 바로 市場失敗의 논리이며, 市場失敗의 원인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去來費用理論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이론이 기업법위를 결정하는 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고찰했으며 끝으로 이의 한계점을 지적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여러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거래비용이론의 다당성을 높이고자 했다.

II. 거래비용이론의 내용

1. 발전과정

去來費用理論은 윌리엄슨(williamson)에 의해서 제도주의경제학(institutional economics), 조직이론, 계약법 등을 통찰하여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경제적 분석의 기본단위를 거래로 정하고 거래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거래를 시장에서 행하는 것보다는 기업내부에서 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이 출현하게 되었고 점차 성장한다는 논리이다.

거래를 경제적 분석의 기본단위로 제안한 사람은 코먼즈(commmons)인데,⁸⁾ 그는 경제적으로 분리된 실체들간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매개하는 다양한 去來構造(transaction structure)

6) John McGee, "Strategic Groups: A Bridge Between Industry Structure and Strategic Management," Howard Thomas and David Gardner, eds., *Strategic Marketing and Manage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6, pp.293~313.

7) “보이는 손”이란 펜들러가 다음의 책에서 기업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함 : Alfred D. Chandler, Jr., *The Visible Hand: the Managerial Revolution in American Business*,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8) John R. Commons, *Institutional Economic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34.

가⁹⁾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당사자들간의 거래가 조화롭게 수행되도록 기존의 거래구조가 평가 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새로운 거래구조가 생성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제도주의경제학이다. 코스(Coase)는 1937년 “企業의 本質”이란 논문에서¹⁰⁾ 이 문제를 보다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그때까지의 다른 학자들이 생각하듯이 기업의 경제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이 가능한 즉, 경제적 평가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 연속되는 생산공정에 필요한 활동을 시장에서 조달할 수도 있고 기업내부에 통합할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근거가 바로 去來費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2차대전 이후 30년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75년 윌리엄슨이 위에서 개괄적으로 논의한 두관점에 조직이론과 계약법을 보완하여 去來費用理論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이론을 “市場 및 階層”이란 책에서 제시하였다.¹¹⁾ 이 책에서 그는 어떤 조건하에서 거래가 독립된 실체들로 이루어진 시장에서 보다는 계층적 통제가 있는 기업내부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초기의 市場失敗의 基本模型을 제시한다. 즉 인간행동의 除限된 合理性과 機會主義로 인해 “거래 당사자의 수가 많지 않거나”(small numbers), “거래의 환경이 복잡·불확실”(complexity/uncertainty)한 경우 거래는 시장거래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부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후 클라인(Klein) 등의 논문에서¹²⁾ 영향을 받아 거래 당사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거래의 환경적 속성을 資產特有性이라는 말로 명확히 하였다. 資產特有性이 낮을 때 즉, 非特有的일 때는 거래에 따른 不確實性이 줄어든다고 보고 다만 資產이 特有的일 때 기회주의와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不確實性이 늘어난다고 보아 不確實性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 이어서 特有資產의 경우 그 特有性으로 인해 얻는 便益은 크지만 그에 따른 費用도 커지기 때문에 거래의 빈도(frequency)를 고려하여야 된다고 한다.

1979년에 나온 “去來關係의 支配”라는 윌리엄슨의 논문에서는¹³⁾ 인간행동에 대한 가정을 제외한 3가지의 거래의 특징 즉 資產特有性, 不確實性, 頻度 등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資產特有性

9) 去來構造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가 조정되는 메카니즘을 말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메카니즘에 의해서 거래가 조정되는 市場(market)과 관리메카니즘에 의해서 조정되는 企業(firm)이라는 두 형태로 나누어진다. 去來構造란 이를 쓰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윌리엄슨(williamson)은 거래의 조정이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支配構造(governance structure)라고 쓰고 있으며, 스테른과 레브(Stern and Reve)는 유통경로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에서 內部經濟構造(internal economic structure)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조셉(Joseph)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去來支配(transaction governance)라고 표현하기도 하나, 이들 모두 같은 뜻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去來構造로 통일해서 쓰기로 한다 :

1. Oliver E. Williamson, “Transaction-Cost Economics: the Governance of Contractual Relation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22 c, October 1979, pp.233~61.
2. Louis W. Stern and Torger Reve, “Distribution Channels as Political Economics: A Framework for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Vol. 44, Summer 1980, pp.25~64.
3. Mary Ann Joseph, “Transaction Governance in Marketing Structures: A Study in the Midwestern Hog Marketing Channel,”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en, IL., 1984.

10) Ronald H. Coase,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Vol. 4, November 1937, pp.308~405.

11) Oliver E. Williamson, *Market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12) Benjamin Klein, Robert G. Crawford, and Armen A. Alchian, “Vertical Integration, Appropriable Rents and the Competitive Contracting Proces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78, Vol. 21, pp.297~326.

13) Oliver E. Williamson, 앞의 논문, 1979.

과 頻度를 결합하여 다양한 거래구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윌리엄슨은 1985년에 출간된 “資本主義의 經濟組織”이란¹⁴⁾ 저서에서 거래비용이론을 去來費用經濟學(transaction cost economics)이라고 하여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일부로 본다. 그 이전의 경제학 특히 신고전경제학이 기업을 생산함수로 보아 생산단계 이전이나 이후 단계로 진출하는 동기를 “獨占”으로 보아 규제를 필요로 한다고 본 데 비해 거래비용경제학은 기업을 거래비용의 함수로 보아 효율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즉 거래의 효율성 즉 거래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생산의 전후단계로 진출한다는 관점이다. 이 경우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행동과 거래의 속성을 신고전경제학과는 다르게 가정하고 있다. 신고전경제학에서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비해 거래비용경제학에서는 제한된 합리성으로 보고 덧붙여 강한 사회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신고전경제학에서는 거래가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 본 데 비해 거래비용경제학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특유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기본모형

위에서 논의된 윌리엄슨의 거래비용이론에 포함된 개념을 요약하고 성과계측성을 포함시킨 시장실패의 기본모형에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이 있다.

I. 人間行動에 대한 假定

除限된 合理性

機會主義

II. 去來의 屬性

資產特有性

成果計測性

頻 度

본 항에서는 이러한 5가지 기본개념의 뜻은 물론 이들과 거래구조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制限된 合理性(bounded rationality)이다. 이는 인간의 인지능력에 대한 한계의 인정으로서 신고전경제학에서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이어서 효용의 극대화가 가능하도록 의사결정을 한다는 사고와는 달리 합리성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제한된 합리성은 경제주체들이 “의도적으로 합리적이려고 하나 다만 제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따름이다”(intendedly rational, but only limitedly so)라는 뜻을 의미한다.¹⁵⁾ 이러한 제한된 합리성이 주어진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만 마련된다면 경제적인 효율성이 오히려

14) Oliver E. Williamson,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New York, The Free Press, 1985, pp.15~42.

15) Herbert D. Simon, *Administrative Behavior*, 2nd ed., Macmillian Original Publication, 1961, p.26.

증대 될 수 있다고 본다.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는 方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 하나는 意思決定過程에서 휴리스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去來構造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해줄 수 있는 정도에 따라 去來構造의 적절성 여부가 평가된다.

둘째, 機會主義(opportunism)란 인간의 私利追求 傾向 중¹⁶⁾ 가장 강한 형태인데 “속임수로 私利를 追求하는 것”(self-interest seeking with guile)을 의미한다. 이는 능동·수동적인 측면과 사전·사후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保險契約時 무지로 인해 자신의 질병을 속이는 경우 수동적·사전적인 것이고 보험계약후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능동적이면서 사후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보다 일반적으로 機會主義란 誤導나 混亂을 조장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불완전하고 歪曲되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機會主義가 없다면 모든 거래는 시장기구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利益의 極大化가 가능하게 되며 또한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들 간에 분쟁의 여지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거래비용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하는데 비해 신고전경제학에서는 單純私利追求(simple self-interest seeking)의 가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간행동에 대한 근본 가정에서 다르다.

세째, 資產特有性(asset specificity)은 거래의 구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으로 資產(asset)이 特有的(specific)이나 비特有的(nonspecific) 즉 一般的이나의 여부는 자산의 가치를 회생하지 않고 재배치가능가에 의해 결정된다.¹⁷⁾ 이는 일반목적 투자와 특수목적 투자에 비교될 수 있으나 회계학에서 구분하는 고정비와 변동비의 개념과는 다르다. 고정비와 변동비 모두 特有資產과 非特有資產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자는 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特有資產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資產特有性은 특수한 설비인 物的資產特有性(physical asset specificity),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을 갖는 人的資產特有性(human asset specificity), 지리적 근접성에 의해 생기는 立地特有性(site specificity) 등이 대표적인데, 이의 구체적인 종류는 거래구조와의 관계에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資產特有性이 去來構造를 결정하는 과정 즉,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가능하다. 資產이 非特有的일 때는 새로운 거래는 쉽게 성립될 수 있고 계속성이 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회주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 시장거래가 적합하고 반면에 資產이 特有的일 때는 기회주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行動的 不確實性(behavioral uncertainty)을¹⁸⁾ 초래하게 되고 制限된 合理性으로 인해 내부 거래가 유리하다는 논리이다.

세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 즉, 成果計測性(performance meserability)이 거래구조를 결정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알키안(Alchian)과 템세츠(Demsety)가 지적한 변

16) 私利追求 傾向은 3수준이 있다. 즉, 가장 강한 것이 기회주의이고 중간이 단순한 사리추구이며 가장 약한 것이 복종(obedience)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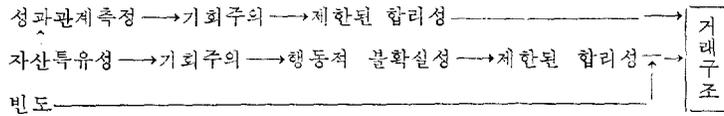
17) Benjamin Klein, R. obert G. Crawford, and Armen A. Alchian, 1978, pp.297~326.

18) 不確實性은 흔히 주요 불확실성과 2차 불확실성으로 나누는데 후자의 경우 의사소통을 통해 축소가능한 불확실성을 말하고 전자는 축소불가능한 불확실성을 말한다. 반면에 행동적 불확실성은 거래 당사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해서 생기는 불확실성을 말한다.

수로서,¹⁹⁾ 업무의 不可分性이 있어 결합효과가 있는 경우 각 생산요소들의 생산성을 측정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과실을 할당하는 데도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 판매원의 공헌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수만 있다면 이들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기타 여러 의사결정을 하는 데 제한된 합리성이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시장거래가 가능하나 그 반대인 경우 내부거래가 유리하게 된다.

끝으로 頻度(frequency)이다. 이는 特有化된 資産인 경우 그 特有性으로 인해 내부화했을 경우 얻는 便益은 크나 반면에 費用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래구조를 결정할 때 어느 정도 빈번히 이용되는가 하는 使用頻度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다.²⁰⁾ 즉, 特有化된 資産의 경우 內部去來를 함으로써 거래비용의 절약은 가능하나 시장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인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의 효과를 희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구조를 결정할 때는 이들 양자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다. 使用의 頻도가 높다면 내부화에 따른 便益은 즐기면서 專有에 따른 費用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 시장거래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게 되어 내부화가 더욱 유리해진다. 그러므로 거래구조를 결정할 때는 내부화의 이점과 시장거래에 따른 이점을 저울질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시장거래에 따른 이점을 相殺시킬 수가 있어 의사결정이 보다 분명해진다.

이상과 같은 5가지 市場失敗의 基本模型의 개념들이 상호 어떤 관계로 거래구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먼저 資本特有性이 높을 때 機會主義에 노출되게 되어 행동적 불확실성이 생기게 되고,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시장실패현상이 생겨 내부화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시장거래에 따른 이점인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의 효과를 상쇄



<그림 1> 시장실패의 기본개념과 거래구조

시킬만한 정도의 使用頻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다. 한편 資産特有性이 존재할 때 成果測定의 모호성 때문에 책임회피(shirking)적인 행동이 있을 수가 있고 이를 감독하는 데 따른 한계 때문에 시장실패현상이 생겨 내부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5가지 기본개념들 중에서 윌리엄슨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 자산특유성인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 기본개념이 각각 하나씩 없는 경우와 모두 있는 경우로 나누고 있다.²¹⁾ 첫째, 기회주의와 자산특유성이 있으나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지 않

19) Armen A. Alchian and Harsid Demsety, "Prduction Cost, and Economic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December 1972, pp.777~795.

20) Oliver E. Williamson, 1985, pp.60~61.

21) Oliver E. Williamson, 1985, pp.30~32.

있을 경우는 기회주의와 자산특유성에 의해 생기는 행동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알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작업이 적합하다. 둘째, 자산특유성과 제한된 합리성은 있으나 기회주의가 없는 경우 행동적 불확실성이 낮기(거래당사자의 말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約束이 적합하다고

〈표 1〉 3가지 주요 개념과 거래구조와의 관계

제한된 합리	성기회주의	자산특유성	거래구조
0	--	+	계획
+	0	+	약속
+	+	0	경쟁
+	+	+	내부화

단, +는 있다는 표시이고 0은 없다는 것임
 자료: Oliver E. Williamson, 앞의 책 1985, p.31.

본다. 셋째,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는 있으나 자산특유성이 없는 경우 거래쌍방이 거래의 계속성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시장거래 즉, 경쟁이 적합하다고 본다. 끝으로 모두 있는 경우는 내부화된 거래구조가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거래의 3가지 속성 중 자산특유성과 빈도가 거래구조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그림 2〉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²²⁾ 사용빈도에 관계 없이 非特有的 資産인 경우에는 市場支配(market governance)가 유리하고, 사용빈도가 많지 않고 資産이 特有的내지는 混合的인 때는 “거래가 제 3자에 의해가 조정되는” 三角支配(trilateral governance)가 거래구조로 적합하다고 본다. 資産이 特有的이거나 混合的인면서 사용빈도가 많다면 내부화했을 때의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장거래보다는 關係契約(relational contracting)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關係契約은 資

		특유성의 정도		
		비 특 유 적	혼 합 적	특 유 적
빈 도	비 빈 부	시장지배	삼각지배 (신고전적 계약)	
	빈 부		(고전적 계약)	쌍방지배 (관계 계약)

〈그림 2〉 支配構造와 去來特徵과의 關係
 자료: Oliver E. Williamson, 1979, p.253.

産의 特有性 정도에 따라 거래 쌍방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雙方支配(bilateral governance)와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통합된 單一支配(unified governance)로 나누어진다. 雙方支配의 경우 資産이 混合的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외부조달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노리자는 것이고, 單一支配의 경우 규모의 경제보다는 내부화된 便益을 중시한 것이다. 이처럼 資産特有性

22) Oliver E. williamson, 앞의 논문, 1979.

과 頻度와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외부조달에 따른 거래비용과 내부화에 따른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거래구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成果計測性과 去來構造와의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알키안과 템세르는 업무의 不可分性 예를들어, 資産特有性 때문에 成果測定의 문제가 생기고 이에 따라 機會主義的인 행동이 파생되나 이를 시장기구를 통해서만 통제하기가 어려워 기업이 생성되었다고 한다.²³⁾ 다음으로 오우치(Ouchi)는 成果計測性을 成果模糊性(performance ambiguity)이라고 표현하고, 공통의 목적에 대한 가치부여로 기회주의가 배제된 상태를 目標一致性(goal compatibility)이라고 하여 <그림 3>과 같이 거래구조가 결정된다고 한다.²⁴⁾ 성과모호성은 높으나 목표일치성이 낮을 때 즉, 기회주의가 높을 때 엄격한 규칙이나 통제를 통해서

		성과 모호성	
		높 다	낮 다
목표일치성	낮 다	계 층	시 장
	높 다	클랜 (clan)	

<그림 3> 성과계측성과 거래구조
 자료: 다음의 논문에 근거하여 만든 그림임.
 William G. Ouchi, 같은 논문.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구조로서 “階層”(hierarchy)이 적합하다고 보고, 공통목표에 대한 도덕적 가치부여가 높아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적다면 즉, 목표일치성이 높다면 클랜(clan)이 거래구조로서 적합하다고 본다. 윌리엄슨도 計測性과 人的資産特有性을 결합시켜 거래구조가 결정된다고 보고 計測이 쉽고 非特有的일 때 시장거래가, 계층이 쉽고 特有的일 때는 계약이, 계층이 어려울 때는 팀조직이 필요하고 한다.

Ⅲ. 거래비용이론의 적용

1. 다 각 화

多角化(diversification)란 “기존과 다른 상품·시장에 진입하는 것” 혹은 “산출물의 이질성의

23) Armen A. Alchian and Harold Demsetz, 앞의 논문.

24) William G. Ouchi, “Markets, Bureaucracies, and Cla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125, 1980, pp. 129~141.

25) Oliver E. Williamson, “The Economics of Organization: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7, No. 3, pp.548~577.

증가”등으로 정의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효율적인 관련 다각화의 논리적 근거를 去來費用理論에서 찾을 수 있다는 티스(Teece)의 연구이다.²⁶⁾ 출발점은 일단 기업을 생산함수로 보아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에 의해 기업의 범위가 결정된다는 논리이다. 두 제품을 따로 생산하는 비용보다 결합 생산하는 비용이 더 작을 때 범위의 경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다각화의 이론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노우하우나 不可分의 資産(indivisible assets)을 내부화시킴으로써 관련 다각화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각화와 수직적 통합이 다른 점은 내부화되는 거래의 차이에 있다. 수직적 통합은 단일생산과정에 대한 유형적 투입물(tangible inputs)을 내부화시키는데 반해 관련다각화는 노우하우나 그외 여러 생산과정에 공통된 투입물의 내부화를 말한다. 수직적 통합의 경우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매입하는 입장에서 논의되는 데 반해 관련다각화에서는 축적된 자산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논의된다는 점도 다르다. 노우하우에는 기술적 노우하우, 관리적 노우하우, 상표 등과 같은 영업권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데는 “한 곳에 적용하는 것이 다른 곳에 적용하는 데 방해를 주지 않는” 공공재(public goods)적인 성질 때문에 효율적인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추론은 (1) 노우하우에 대한 인식이 어렵고 (2) 공개의 위험이 있으며 (3) 시장거래에 대한 조직의 상대적인 우월성 등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여러 생산과정에 공통되는 불가분의 자산의 경우 노우하우도 포함되지만 특히 물적자산을 강조하여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고 불가분이면서 둘 이상의 생산과정에 공통적으로 투입될 때 관련다각화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조건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한히 다각화를 계속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즉 범위를 확대하다보면 경쟁적 우위가 상실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범위의 경제를 누릴 수 없고 특히 혼잡(congestion)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윌리엄슨은 콩그로머리트조직(conglomerate organization)의 이점을 資本市場失敗의 논리로 설명하는데,²⁷⁾ 이러한 접근은 비관련다각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 콩그로머리트조직 혹은 다사업부조직(M-form)은 외부자본시장에 비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원 할당에 유리하다고 한다. 첫째, 그룹총괄부서(general office)에서 각 사업부의 성과를 상세하게 평가할 수 있고 둘째, 외부시장에 비해 투자대상을 교체하는 데 따른 교체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사태의 진전에 따라 사전·사후에 슬기롭게 조정이 가능하며 셋째, 외부투자자에 비해 그룹총괄부서에 의한 경영개입이 기업의 입장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介入費用이 덜 든다는 등의 3가지이다. 세번째 제시된 介入費用의 문제는 젠센(Jensen)과 메클링(Meckling)이 말하는 代理費用(agency cost) 즉, ① 투자자가 代理人인 경영자의 움직임을 규제·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 ② 代理人이 투자자를 안심시키기에 드는 비용 ③ 여타 代理人과 투자자간의 해결되지 않은

26) David J. Teece, "Economics of Scope and the Scope of the Enterpris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1, 1980, pp.223~47.

27) Oliver E. Williamson, 1975, p. 155~175.

이해상충으로 인해 생기는 비용 등이 절약될 수 있다는 논리와 뜻을 같이 한다.²⁸⁾ 이러한 이점 때문에 각사업부가 독립되어 있어 외부투자자로서 각각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통합하여 내부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여 비관련다각화를 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기업은 단일 사업에서 형성된 特有資産과 金融資産을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서 다각화를 하는데, 特有資産 예를 들어 기술에 대한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련다각화를 하고, 금융자산을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관련다각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수직적 통합

수직적 통합이란 한 기업의 영역내에 부가가치 단계인 원자재나 부품의 조달, 완제품의 생산, 유통 등을 결합하는 것으로서 통합주체의 입장에 따라 前方統合과 後方統合으로 나뉘어 진다. 엄격하게 말하면 前方統合이란 판매자의 입장에서 구매자를 결합하는 것을, 後方統合은 구매자의 입장에서 판매자를 결합하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하지만 수직적 통합과 관련된 많은 문헌에서는²⁹⁾ 실제로 완제품의 생산자 입장에서 원자재나 부품의 공급자를 결합하는 것을 後方統合으로, 완제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중간상을 결합하는 것을 前方統合으로 각각 지칭되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사용한다.

1) 후방통합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을 시장 거래(buy)를 통해서 조달할 수도 있고 내부거래(make)를 통해서 조달할 수도 있는데,³⁰⁾ 양자 중 어느 거래구조를 택할 것인가의 여부의 결정은 거래비용에 달려있다는 논리이다. 즉, 특정기업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이 特有하여 시장거래시 이의 공급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물량확보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을 때 내부거래를 택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용물량이 많아 규모의 경제까지 있다면 보다 효율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윌리엄슨은 <그림 4>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³¹⁾ 그림서 S_1, S_2, S_3 는 핵심생산 단계를 R 은 원재료를, C_1-B, C_2-B, C_3-B 는 시장에서 購入하는 부품을, C_1-O, C_2-O, C_3-O 는 내부에서 製造하는 부품을, $D-O$ 와 $D-B$ 는 각각 내부유통경로와 시장유통경로를 의미한다. 또한 단위간의 실선은 실제거래를, 점선은 잠재거래를 의미하고 원재료, 부품, 생산, 유통경로 등을 둘러 싸고 있는 폐쇄된 곡선은 企業範圍(the boundary of firm)를 의미한다. 그림에서 지적할 수 있는 기업범위의 특징은 먼저, 연속되는 생산단계는 대체적으로 내부화되며 둘째로, 현

28) Michael C. Jensen and William H. Meckling,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3, No. 4, 1976, pp.305~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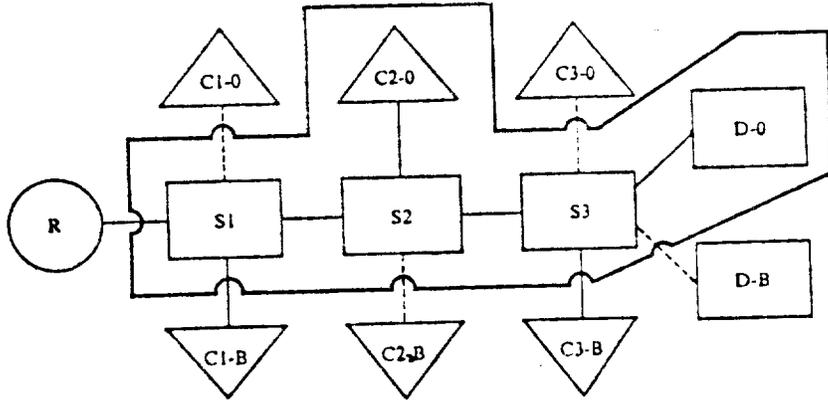
29) 다음 논문에서 이 문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Katherin Rudie Hanigan, "Vertical Integration and Corporate Strateg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28, No. 2, 1985, pp.397~425.

30) "buy"와 "make"외에도 준통합, 부분통합, 장기계약 등 여러 가지 거래구조가 있을 수 있다:

David A. Aaker, *Strategic Market Manage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4, pp.241~50.

31) Oliver E. Williamson, 앞의 논문, 1981.



〈그림 3〉 I 效率的 境界 (efficient boundary)

자료 : Oliver E. Williamson, 앞의 논문, 1981, p. 557.

재의 유통기능의 수행 부품의 조달도 거래비용을 따져 내부거래와 시장거래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세째로, 원자재의 조달은 어느 정도 시장거래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이 거래비용이론에 의한 후방통합의 논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이다. 거래되는 자원의 특유성여부와 규모의 경제(사용빈도)가 시장거래의 어려움 즉 시장실패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급업자의 시장력(supplier power)에 대한 인식이 不足하다. 예를 들어 공급업자가 독과점 업체 일 때 이들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의해서 시장실패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조달의 통합여부는 이들 시장의 불완전성 즉 시장실패여부에 달려있는데, 이들 시장의 실패는 그 원인을 기본적으로는 거래비용에서 찾을 수 있겠고 나아가서 공급선의 시장력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전방통합

전방통합이란 앞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유통경로의 통합문제로서 통합의 정도와 단계의 문제로 논의의 초점이 모여진다. 먼저 통합의 정도는 거래구조의 형태 문제로서 유통경로 문헌에서는 4가지로 나눈다.³²⁾

첫째, 企業型인데 이는 제조업체와 중간상간의 소유권이 일치하여 거래가 완전히 내부화된 것으로 흔히 지점이나 지사로 지칭되는 것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둘째, 契約型인데 이는 양자간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거래는 계약에 의해서 내부거래에 준할 정도로 定型化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리점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세째, 協調型과 市場型이 있는데 이들은 소유권이 독립되어 있고 양자간의 거래가 시장가구에 의해 그때 그때 이루어지는 시장거래로서, 다만 協調型의 경우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다음으로 통합 단계의 문제인데 이는 윌리엄슨의 연구에³³⁾ 의거하여 논의한다. 윌리엄슨의 연

32) Louis W. Stern and Adel I. El-Ansary, *Marketing Channels*,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2, pp. 306~59.

33) Oliver E. Williamson, "Organizational Innovation: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J. Rosen, ed., *Entrepreneurship*,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83, pp. 101~34.

구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철도 및 통신의 발달로 전방통합의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모든 산업에 걸쳐 포괄적이었다가 보다는 선택적으로 나타났다는 쉐들러의 연구에³⁴⁾ 착안한 것이다. <표 2>에서와 같이 統合段階를 잘못 통합된 경우까지 합해 5가지로 나누고 이의 결정요인으로서 범위의 경제, 외부성(externality), 자산특유성등 셋을 들고 있다. 범위의 경제란 시장실패모형에 제시된 頻度の 개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시장거래의 이점을 지칭한다. 또한 자산특유성은 시장실패모형에 제시된 용어와 같은 뜻이고, 다만 外部性은 시장실패모형의 成果計測性에 해당되는 용어로서 중간상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도되지 않은 질적저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소매점이 잘못 취급함으로 인해 다른 소매점에 있는 그 상품의 이미지에도 손상

〈표 2〉 前方統合

통합 단계	범위의 경제	외부성	자산특유성
A : 전 혀	++	0	0
B : 약 간	+	+	0
C : 도 매	~	+	+
D : 소 매	0	+	++
E : 소매/실패	+	0	0

자료 : Oliver E. Williamson, 앞의 논문, 1983, p.114.

을 끼리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外部性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한 유통업자가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여 그것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할지라도 그 혜택이나 피해가 그런 행위를 처음 한 업체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표에서 ++는 상당히 있는 것을 +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을, ~는 불확실한 것을, 0은 무시할 정도를 각각 나타낸다.

표에서 보면 A와 B 단계까지는 市場型 거래구조인데, 이 경우는 자산의 특유성이 무시될 정도이며 외부성은 재고감시로 극복될 수 있고 시장거래에 따른 이점인 범위의 경제가 있기 때문이다. A, B 단계에서 C 단계인 도매통합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범위의 경제가 의문시 되고 외부성과 자산특유성이 약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표의 명성을 보호할 필요는 있고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품목의 수가 많아져서 구색을 갖추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 도매단계까지는 내부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D 단계인 소매단계까지의 통합은 자산특유성이 높아 특별한 취급이 요구되고 외부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이미지 손상을 염려할 정도가 된 경우로서 범위의 경제가 거의 무시할 정도에 이루어진다. 자동차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끝으로 잘못된 소매통합의 경우인데, 외부성과 자산특유성이 거의 무시할 정도인데도 통합 즉, 내부거래를 하여 범위의 경제가 희생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특유성이 없이 단지 경쟁업자가 진입하려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가 강할 때 이런 경우가 생긴다.

요약해서 보면 유통기능을 외부업체에 의해서 수행하는 경우 자산특유성이나 외부성으로 인해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소유권이 통합된 내부업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케 하는 것이

34) Albred D. Chandler, Jr., 앞의 책, 1979, pp.287~314.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다만 외부업체의 수행에 따른 범위의 경제 효과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다.

3. 해외직접투자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에는 수출, 라이선싱, 해외직접투자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이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필 해외직접투자를 택하는 논리적 근거를 설명하려는 것이 해외직접투자이론이다. 해외직접투자란 결국 수출이나 라이선싱처럼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고 내부거래를 함으로써 기업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해외직접투자는 원료확보, 시장확보, 노동확보, 기술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 역시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확보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거래비용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진입하고자 하는 목표국의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우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우위란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목표국 기업들과의 상대적인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목표국 즉, 투자의 입지가 중요하다. 우위란 원가상의 우위일수도 있고 차별화의 우위일수도 있다. 이러한 優位는 企業特有的 資産에 근거하며 이들 資産은 제품에 體化되어 목표국에 진입할 수도 있겠고(수출에 해당), 資産 자체를 시장에서 일정 댓가를 받고 판매할 수도(라이선싱에 해당) 있다. 수출이라는 시장거래를 통해서 제품이 목표국에 진입하는 경우 資産特有性과 外部性이 존재하고 範圍의 經濟가 존재한다면 前方統合에서와 같이 내부거래로 바뀌어 판매자회사가 설립되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목표국 정부의 人爲的 進入障壁에 의한 市場失敗 현상 때문에 工場을 설립한다. 한편 企業特有的 資産 자체를 시장거래로 통해서 특정국의 기업에게 판매하고자 할 때, 資産의 不可分性으로 인해 성과의 측정이 어려워 거래비용이 발생하여 공장까지 나가는 내부거래로 바뀐다. 또한 企業特有的 資産이 기술인 경우 기술의 公共財의 성질로 인해 기술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해외사업에서 거래구조가 시장거래에서 기업내부거래로 바뀌는 현상을 “內部化”라고 하며 해외직접투자이론에서는 이를 “內部化理論”이라고 하는데, 러그먼(Rugman)과³⁵⁾ 카슨(Casson)³⁶⁾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요약하면 企業特有的 資産을 시장에서 거래하는데 따른 거래비용 때문에 市場失敗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래구조를 내부구조로 바꾸게 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내시장과는 달리 정부의 개입에 의한 人爲的 市場失敗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35) Alan M. Rugman, "Internalization as a General The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lan M. Rugman, ed., *Inside The Multinational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pp.38~52.

36) Mark Casson, "Transaction Costs and the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Peter J. Buckley and Mark Casson, eds., *The Economic Theory of the Multination Enterprise*, New York, St. Martin's Press, pp. 20~38.

IV. 거래비용이론의 비판

거래비용이론의 비판에 앞서 이 이론과 이를 실제로 적용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시장에서 조달하거나 기업에 내부화시킬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시장실패의 기본모형에 의하면 인간행동에 대한 假定인 除限된 合理性, 機會主義 등과 거래의 속성인 資産特有性, 成果計測性, 頻度 등이 결합하여 시장실패의 조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거래구조가 내부구조로 바뀌게 되었고 따라서, 기업이 생성되게 된 이론적 근거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산간의 결합효과를 누리고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련 및 비관련 분야로 진출한다고 한다. 이는 기업이 축적해온 資産의 特有性 때문에 가격형성이 어려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사업으로 진출하게 된다는 것이고 기업이 축적해온 자본을 투자하는 데 외부자본시장에 비해서 내부자본시장이 효율적이고 또한 대리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관련다각화로 진출한다는 것이다.

셋째, 원재료 및 부품시장의 실패로 인해 기업이 생산단계를 중심으로 원재료 및 부품의 공급단계를 통합하게 되고 유통기능 조달의 실패 때문에 유통경로를 통합한다는 것이다. 후방통합의 경우는 資産特有性이 높아질수록 기회주의로 인해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사용빈도도 많아 규모의 경제도 있을 때 직접생산하는 거래구조를 택한다고 한다. 전방통합의 경우 資産特有性이 높고, 外部性이 높고, 範圍의 經濟가 적을수록 거래비용은 높아지고 내부화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내부거래구조 즉 企業型을 택한다고 한다.

끝으로 수출이나 라이선싱 대신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되는 이유는 경쟁적 우위의 원천이 되는 企業特有 資産을 시장거래를 하는 경우 따르는 비용 때문에 내부거래 즉, 해외직접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거래비용 발생의 대표적인 이유로는 企業特有資産의 不可分性으로 인해 成果計測性의 문제가 생기며 이렇게 되면 가격형성이 어려워져 시장실패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거래비용이론이 기업범위의 결정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했다. 이러한 논리는 최근 들어서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거래비용을 축소시키며 보완적인 영업의 통합으로 상호효과를 얻기 위해서 내부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안트(Arnat)의 견해와도 일치한다.³⁷⁾ 이처럼 거래비용이론이 기업범위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이론이 넘어야 할 한계점도 많다.

첫째, 거래비용이론에서는 기업범위의 결정에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거래비용

37) Johan Arndt, "Toward a Concept of Domesticated Markets," *Journal of Marketing*, Vol. 43, Fall 1979, pp. 69~75.

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의 경제적 효율성은看過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힐과 호스키션(Hill and Moskisson)은 관련다각화로 인해 얻는 [경제적인 효과를 “결합적 경제”(synergistic economies)라고 하고, 비관련다각화로 인해 얻는 경제적인 효과를 “금융적 경제”(financial economies)라고 하며, 전후방통합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인 효과를 “수직적 경제”(vertical economies)라고 하여 경제적인 효과와 기업범위 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연결시켜 강조하고 있다.³⁸⁾ 이처럼 거래비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의 경제적인 효과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거래비용이론에서는 전략 대안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으나 여러 전략대안간의 관계는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범위의 결정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거래비용이론이 기업범위를 결정하는 조직이론에 상당한 공헌을 했으나 歷史的 分析 및 組織分析이 부족하다는 로빈스(Robins)의 지적이다.³⁹⁾ 지나치게 시장에서의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가치창조 단계 즉 생산의 주체인 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또한 윌리엄슨이 쉐들러의 歷史的 考察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나 실증분석에서는 歷史的 觀點에서의 논의가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고찰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기업에 대한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組織理論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리라 본다.⁴⁰⁾

끝으로 企業範圍의 결정과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거래비용이론 역시 기존의 체계이론에 근거한 기능주의적인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 극복방안으로서 政治經濟的 接近이 논의되고는 있으나⁴¹⁾ 이 方法 역시 총체적 접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 접근이란 문제인식, 가설의 설정, 자료의 분석 및 해석 단계에서 사물을 본질적 관계 속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社會科學方法論이다. 이는 극히 추상적인 수준인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현상의 內在的 因果關係를 파악하라는 논리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재벌 즉, 기업집단을 인식하는 문제에서만 보더라도 국가독점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느냐 주변부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판이하게 분석의 안목이 달라질 수 있다.

38) Charles W.L. Hill and Robert E. Hoskisson, "Strategy and Structure in the Multiproduct Firm,"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2, No. 2, 1987, pp.331~341.

39) James R. Robins, "Organizational Economics: Notes an the Use of Transaction-Cost Theory in the Study of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32, 1987, pp.68~86.

40) 조직이론과 거래비용이론을 통합시켜 보려는 시도가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조직경제학”이라고 부르고 있다:

Jay B. Barney and William G. Ouchi, eds., *Organizational Economics*, San-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6.

41) 정치경제적 접근법은 자원의존모형의 힘-의존 관계와 거래비용 이론의 경제적인 관점을 결합한 것으로서 최근 들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方法論인데, 예를 들면 유통경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본문이 대표적이다:
Louis W. Stern and Torger Reve, 앞의 논문.

V. 맺는 말

企業範圍를 결정하는 문제는 경영전략에 속하는 문제로서 기업의 死活이 걸렸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극히 부분적인 연구를 제외하고는⁴²⁾ 아직 총체적인 면에서의 고찰은 전무한 형편이다. 작금에 와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기업자체에만 영향이 귀착되기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단편적인 안목에서 자본가 개인이나 가족의 소유이기 때문에 타인이 관여할 바 못된다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사회는 많은 矛盾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장기구를 전제로 하여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후 정부변수나⁴³⁾ 외국변수를 도입시킴으로서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필요에 의해서 본 연구가 시행된 것이다. 구체적인 접근방법으로서 거래비용이론의 설명력을 확인하였고 이의 단점까지도 지적하였다. 적어도 기업차원의 의사결정에는 다양한 관점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경영전략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해두고자 한다. 이는 하나의 方法論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이 전제된 후 거래비용이론으로 조직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범위가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행히도 정치경제적 분석이 경영학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이데올로기까지 고려한 총체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矛盾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따지기보다는 “왜 그렇게 되어 있나”를 알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윌리엄슨의 去來費用理論에 근거한 市場失敗模型을 企業範圍의 決定에다 적용시켜 봄으로써 이러한 目的에 부응하고자 했다. 원인을 설명하는 說明力이 어느 정도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오늘날 우리 사회 및 기업이 當面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서 分野間協同研究(interdisciplinary approach)의 시도를 해보았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개발된 去來費用理論을 경영학에 도입한 연구가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해외직접투자현상을 설명하는 데 이미 도입이 되었다. 본 연구를 징검다리삼아 보다 다양한 연구영역에 확산되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구성체가 안고 있는 矛盾을 해결하는 데 一助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2) 정치경제변수와 사회문화변수를 가지고서 한국기업의 성장과정 중, 다각화를 설명하려는 연구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업의 성장전략과 경영구조」, 서울, 1987.

43) 시장실패를 전제로 해서 정부가 시장기구에 깊이 개입했고 그 결과 어떤 문제가 파생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다 : 李奎儼, “우리나라의 政府와 企業間 關係” 李學鍾·鄭求鉉 外, 「韓國企業의 構造와 戰略」, 法文社, 1986.

참 고 문 헌

- 1)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업의 성장전략과 경영구조」, 서울, 1987.
- 2) 李奎億, “우리나라의 政府와 企業間 關係,” 李學鍾·鄭求鉉 外, 「韓國企業의 構造와 戰略」, 法文社, 1986.
- 3) 이진경,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 . 1987.
- 4) 조희연 외, 「현단계」, 제 1집, 한울, 1987.
- 5) Aaker, David A., *Strategic Market Manage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4.
- 6) Alchian, Armen A. and Harold Demsetz, “Production, Information Cost, and Economic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December 1972, pp.777~795.
- 7) Johan Arndt, “Toward a Concept of Domesticated Market,” *Journal of Marketing*, Vol. 43, Fall 1979, pp.69~75.
- 8) Barney, Jay B. and William G. Ouchi, eds., *Organizational Economics*, San-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6.
- 9) Casson, Mark, “Transaction Costs and the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Peter J. Buckley and Mark Casson, eds., *The Economic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New York, St. Martin's Press, pp.20~38.
- 10) Coase, Ronald H.,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Vol. 4, November 1937, pp.386-405.
- 11) Commons, John R., *Institutional Economic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34.
- 12) Marrigan, Katherin Rudie, “Vertical Integration and Corporate Strateg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28, No. 2, 1985, pp.397~425.
- 13) Hill, Charles W. and Robert E. Hoskisson, “Strategy and Structure in the Multiproduct Firm,”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2, No. 2, 1987, pp.331~341.
- 14) Jensen, Michael C. and William H. Meckling,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3, No. 4, 1976, pp.305~360.
- 15) McGee, John, “Strategic Groups: A Bridge Between Industry Structure and Strategic Management,” Howard Thomas and David Gardner, eds., *Strategic Marketing and Manage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pp.293~313.
- 16) Klein, Benjamin, Robert G. Crawford, and Armen A. Alchian, “Vertical Integration, Appropriate Rets and the Competitive Contracting Proces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78, Vol. 21, pp.297~326.
- 17) Ouchi, William G., “Markets, Bureaucracies, and Cla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25, 1980, pp.129~141.
- 18) Robins, James A., “Organizational Economics: Notes on the Use of Transaction Cost Theory in the Study of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32, 1978, pp.68~86.
- 19) Rumelt, Richard P., *Strategy,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 20) Rugman, Alan M., “Internalization as a General Theor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lan M. Rugman, ed., *Inside The Multinational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pp. 38~52.

- 21) Simon, Herbert D., *Administrative Behavior*, and ed., New York, Macmillian Original Publications, 1961.
- 22) Stern, Louis W. and Torger Reve, "Distribution Channels as Political Economics: A Frame work for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Vol. 44, Summer 1980, pp.25~64.
- 23) Teece, Daivd J., "Economics of Scope and the Scope of the Enterpris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nization*, Vol. 1, 1980, pp.223~47.
- 24) Williamson, Oliver E., *Markets and Hiera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 25) _____, "The Economics of Organization: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7, No. 3, 1981, pp.548~579.
- 26) _____, "Organizational Innovation: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J. Rosen, ed., *Entrepreneurship*,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83, pp.101~34.
- _____,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New York, The Free Press, 1985.

